

농림식품 신기술 11건 신규 인증

농식품부, 가축질병 바이러스·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 구비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에 가축 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TI)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

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했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은 기존 방제복의 낮은 투습성을 개선해 방역·농업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차대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제 제조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

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재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탄 세우기(휴입) 파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카팅) 기술, 파필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코팅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다음 달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해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6일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뉴딜 선도기업 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전북은행, 신보와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6일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신성장 동력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 및 수출기업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것이다. 전북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뉴딜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기업, 수출중소기업, 또는 전북은행이 추천하는 성장 유망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 1년 만기(연장가능)이며 취급 후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서 발급, 보증료 감면,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서한국 은행장은 “이번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 금융지원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업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대희 기자

'최고의 한우 능력 보소'... 보증씨수소 18마리 선발

농진청, 내달부터 정액 공급... 농가 한우개량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가축계량협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혈통·외모·유전체 정보를 종합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한우 보증씨수소 18마리를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뽑은 씨수소 18마리 중 4마리의 유전능력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94마리) 정액의 유전능력과 비교해 케이피엔(KPI) 선발지수가 상위 10%에 포함될 정도로 우수하다.

이번에 새로 선발한 보증씨수소는 2021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평균 도체중 유전능력은 2.54kg, 등심단면적 유전능력은 0.98cm² 우수하다. 보증씨수소 가운데 도체

중 유전능력은 KPN1447, KPN1446, KPN1434, 등심단면적 유전능력은 KPN1459, KPN1449, KPN1444, 근내지방도 유전능력은 KPN1447, KPN1459, KPN1409가 높다.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오는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씨수소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축산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농축협연합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6개월마다(6월, 12월) 국가대위 한우



한우보증씨수소 KPN1447.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가평군은 “한우 보증씨수소의 최신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꼭 확인하고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의 혈통과 능력을 고려해 보증씨수소 정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윤호백 가축계량평가과장은 “농가 개량 목표에 따라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등의 항목별 유전능력을 확인하여 정액을 선택하고, 계획 교배를 해야 한우 개량과 소득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계량협회의 한우분과위원회에서 보증씨수소를 최종 선발한다.

한우 육종농가 이병환 대표(경기도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북조달청, 임실호국원서 임인년 맞이 신년참배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임인년을 맞아 6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하고자 이뤄졌고,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이주현 청장을 비롯한 소수의 전북지방조달청 직원들만 참여했다.

이주현 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농어민위 공동위원장

국영석 고산농협조합장이 지난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송영길 대표는 “국영석 공동위원장은 오랜 정치 경험과 농업 분야 최고의 전문기로서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낸 훌륭한 일꾼”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정치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영석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며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업 분야 네트워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대희 기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확대 지원

경진원,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기업 모집 10일까지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이 도내 마을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도내 마을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전국 유일의 고유 지원사업으로 현재 도내에는 106개의 마을기업이 육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올해 전라북도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된 사무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뿐 아니라 간담회와 지속적인 컨설팅 등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지속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도 마을

기업 매출증대를 이끌고 있다.

전라북도과 경진원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희망하는 마을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각 시·군에서 가능하다.

사무장 지원은 2022년 1월 1일 기준만 18세 이상의 전라북도 거주 혹은 거주 예정자로, 2년간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하게 된다. 선정된 사무장은 사무, 관리, 홍보 등의 관련 직무 교육을 받아 마을기업 현장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ttar)와 전라북도 마을기업(http://www.마을기업.kr) 홈페이지 또는 083)711-2116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새해 맞이 고객용 모바일 앱 '메디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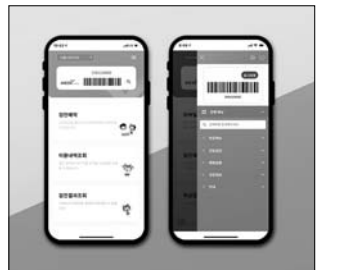
건협, 건강검진 진행상태 조회 등 가능... 1달동안 시범서비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가 2022년 새해를 맞아 고객용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메디체크'를 출시했다.

모바일 앱 메디체크에서는 건강검진 예약, 건강검진 진행상태 조회, 검진결과 조회 및 지난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앱 내 '건강수첩'을 활용해 본인의 혈압, 혈당, 체질량을 주기적으로 기록할 경우 그래프 등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건강관리가 용이하다.

앱은 1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모바일 수납, 실비보험 청구, 전자문진 기능 등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요구되



고, 고객 편의와 서비스 접근성이 곧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모바일 앱 메디체크는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잡아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삼 기자